

<교회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P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백운교회 소식지

창간 2014년 4월 6일 대표전화 043/652/9191

제 30호 2016년 9월 4일 발행 [월간]



### 마음의 겨울

날씨가 추워졌다. 거들떠보지도 않던 긴팔을 찾아야 했고, 밤에는 창문을 닫아야 했다.

불과 며칠전만 해도 '덥다'란 소리를 입에서 되뇌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춥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변덕이 심한 사람들 같다. 조그마한 추위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산다면, 찬바람이 뽀뽀하는 겨울이 되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겨울이 오면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비가 오면 빨리 날이 갠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변덕이 죽 끓듯 한다'고 말한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이 나온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1:1 [제1권] <두 가지 삶의 길> 행복한

## “행복한 사람, 나쁜 사람”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1:2 그들은 여호와와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1:3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

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1:4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1:5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1:6 착한 사

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왜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바로 그들의 변화는 항상 불평을 동반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운 것을 불평하고, 추운 것을 불평하고, 낮을 불평하고, 밤을 불평하고, 매사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이 계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동안 한계절 한해를 무사히 잘 보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만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험통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계절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을 알고 불평하지 않는 9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총 결산은 47,765,568,644원이다. 이번 27일에는 각연회와 총북연회를 이끌어갈 감독과 감독회장 투표를 실시하는데, 우리 총북연회에서는 세분의 후보가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세분의 후보는 모두 충주에서 나왔는

데 충주반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윤식목사와 충주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근용목사, 충주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병우목사이다.<사진순> 이번 선거를 통해 감독에 취임하면 2년 동안 총북연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게 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북연회

##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2016년 9월27일(화)



이번 9월 27일(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가 실시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총 13개연회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총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선교연회, 서부연회, 미주특별연회)로 조직되어 있고, 6,657개의 교회에 1,397,918명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 총북연회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410개의 교회에, 40,196명이 등록되어 있다.

### 백운면장 취임 인사말

## “행복하고 늘 넉넉한 백운 사람들”

존경하는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11일자로 백운면장으로 부임 근무하게 된 강연태입니다. 천등산 박달재 아래 자연과 벗하고 있는 백운면에 부임한지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15일자로 백운면 시민복지팀장으로 발령받아 1년여 간을 근무한 적이 있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던 백운면에서 늘 넉넉한 사람들과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또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비가 오질 않아 가뭄으로 농민분들의 애를 많이 태웠던 여름이었는데 반가운 단비로 가뭄이 해갈되고 폭염이 사라져 참 다행입니다. 또한 우리 백운면은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백운면소재지(평동1,2리, 원월리)내에 다목적광장 건립(풋살장, 테니스장, 주차장 시설 등) 도로 및 배수로 정비, 테마산책로, 상징조형물설치, 공중화장실, 체력단련실, 복지회관신축, 회전교차로 설치 등 백운면소재지를 깔끔히 새 단장하여 준공하였으며 박달재 전통시장이 사무실도 없이 장터를 운영하였는데 구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고객지원 센터를 올해 준공을 계획으로 한창 건축을 하고 있어 준공 후는 평동2

리 면소재지 상가 주변이 깔끔하게 새 단장이 되고 박달재전통시장상가 협의회는 운영사무실과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더욱 상가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금년 6월 10일에는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백운면 전체 어른신을 모시고 “효경로잔치” 벌려 실천하는 효도를 하여 각종 기관단체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은 효심 강한 살기 좋은 백운을 만들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마을구석 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마을속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범지대 및 마을내 어두운 곳에 23개 보안등을 추가 신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민들을 가족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면장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런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강연태 백운면장>



2016년 백운교회

#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가 되기를..."

